

관광관련 정부정책

제741호 (2020년 12월 다섯째 주) 정책정보센터 Tour.go.kr

[문화체육관광부] 기술혁신 기반의 미래 관광산업을 육성한다	2
[인천광역시] 제3연륙교 14년만에 드디어 첫 삽 떴다	4
[울산광역시] 울산시, (재)울산관광재단 설립완료 내년 1월 1일 출범	6
[경기도] 도, 관광지 시설개선·인식개선교육 등 관광약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7
[전라남도] 전남도, 글로벌관광 중심지 견인할 '민관협의회' 발족	9
[경상남도] 경남 창원,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공모사업'의 <문화재 등록조사 후보대상지>로 선정	11

[문화체육관광부] 기술혁신 기반의 미래 관광산업을 육성한다

- 3월 11일까지 2021년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 공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기술혁신 기반의 미래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1년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공모한다.
-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첨단정보통신기술을 관광 분야에 접목해 경쟁력 있고 편리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여행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지역관광 첨단화 기반 사업이다.
-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지만 향후 수년 내에 스마트관광 관련 기술이 고도화된다면 스마트관광도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관광 전 목적지 결정부터 실제 관광활동(이동, 식사, 체험, 쇼핑, 숙박 등)과 관광 이후 활동(여행 후기 공유, 관광지 불편 신고 및 개선사항 제안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기술이 융합된 개인별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대자료(빅데이터)와 인공지능, 5세대 이동통신,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등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력의 지속적인 진보가 이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 올해 공모를 통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인천광역시는 월미 관광특구 개항장 일원을 개항장의 역사·문화와 증강현실이 결합된 체험형 콘텐츠, 비대면 예약·결제 종합 서비스 등 스마트관광요소가 집약된 거리로 만들고 있다.
- '21년도 사업 공모 대상지는 '광역·기초지자체와 민간(기업/기관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컨소시엄)'이다. 기본 계획안을 공모해 후보지 3곳을 결정한 후 후보지 세부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상담(컨설팅), 심사과정 등을 거쳐 최종 1곳을 선정한다.
- 후보지 3곳에는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각 1억 원을, 최종 사업지에는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35억 원을 지원한다. 다만 이번 공모 외에도 지방 공항을 기반으로 부처 협력을 통한 통합적인 관광개발 사업지로 선정된 대구광역시와 전라남도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의 대상지로서 함께 추진한다.
- 이번 공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지자체는 민간과의 연합체를 구성해 3월 11일(목)까지 사업계획서 등 요구 자료를 관광공사 스마트관광사업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상세한 공모 내용과 신청 양식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과 관광공사 누리집(www.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스마트관광도시 누리집(smarttourism.visitkorea.or.kr)에서 관련 동영상을 볼 수 있다.

- 특히 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와 민간기업 등이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별도의 창(smarttourism.visitkorea.or.kr)을 개설했다. 연합체(컨소시엄) 구성과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해 동반자를 찾는 지자체와 민간은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자체, 민간기업, 지역주민들과 함께 기술요소가 결합된 관광 서비스와 기반을 만들어 스마트관광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며 “개별 스마트관광도시에서 축적되는 관광 활동 정보도 연계 분석해 지역의 관광콘텐츠, 기반시설 등을 계속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44-203-2816) | 게시일 : 2020.12.22.)

[인천광역시] 제3연륙교 14년만에 드디어 첫 삽 뚫다

- 박남춘 인천시장, 정세균 국무총리 등 참석한 가운데 22일 착공식 행사 개최
- 손실보전금·사업비 부담·공사 설계 등 수많은 난제 극복 마침내 결실
- 완공되면 영종 정주여건 개선·수도권 서부권역 개발 촉진 등 기대

- 인천의 해묵은 난제였던 제3연륙교가 사업 추진 14년 만에 첫 삽을 뜨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청장 이원재)은 22일 서구 청라동 제3연륙교 종점부에서 ‘제3연륙교 건설공사 착공식’ 행사를 개최했다.
- 이 자리에는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 지역 국회의원, 이원재 인천경제청장 등 주요인사 및 주민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관련 2.5단계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참석인원을 최소화해 진행했으며,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 제3연륙교 건설공사 착공식을 개최함으로써 인천시민 모두가 10년 넘게 기다려온 염원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다”며 “인천시장 후보 시절부터 제3연륙교 문제를 반드시 풀겠다고 시민 여러분과 약속했는데 이렇게 지킬 수 있어서 기쁘고 감개무량하다”고 전했다.
- 이어 “제3연륙교는 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연결하고 영종-청라-루원시티-여의도로 이어지는 거대한 금융·상업 클러스터를 잇는 핵심 앵커시설이자 인천시민을 하나로 이어주는 ‘이음의 다리’라고 소개하고 싶다”며 “오래 기다린 만큼 모든 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인천시는 다리가 개통되는 그날까지 꼼꼼하게 공사를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 또한 기념사를 통해 “300만 인천시민의 숙원사업인 ‘제3연륙교’착공을 진심으로 축하 드린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 10대 공약’중 하나인 제3연륙교가 완성되면 주변도시의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개선돼 개발과 투자유치와 활발해지고, 공항경제권이 활성화되며 동북아 중심도시로의 인천의 위상이 한층 높아져 대한민국의 도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제3연륙교는 중구 중산동에서 서구 청라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4.67km(해상교량 3.5km, 육상 1.1km), 폭 29~30m에 왕복 6차로 규모로 건설되며, 2025년 준공될 예정이다. 또한, 영종국제도시를 연결하는 3개 교량중에 유일하게 보도, 자전거도로, 전망대

등이 설치되어 바다 위에서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체험 관광형 문화공간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 제3연륙교는 안전하고 신속하게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다차로 하이패스시스템을 비롯해 영상분석, 운행정보와 도로기상정보 등을 제공하는 지능형 교통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마트한 교량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 인천시는 제3연륙교 착공 과정에서 △제3연륙교 건설 사업 협약을 통한 사업비 부담 관련 LH·인천도시공사와의 합의(2020년 10월) △공사 설계(2020년 8월) 및 3공구 시공사 선정(2020년 11월) △손실보전금 관련 국토부 및 민자 사업자와의 합의(2020년 12월) 등 난제들을 해결하고 공사 착공에 이르게 되었다.
- 오는 2025년 제3연륙교 건설이 완공되면 △영종국제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및 수도권 서부권역의 균형발전(개발촉진)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의 개발 및 투자유치 활성화 △인천국제공항의 정시성 확보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개발과(032-453-7622) | 게시일 : 2020.12.22.)

[울산광역시] 울산시, (재)울산관광재단 설립완료 내년 1월 1일 출범

- 지속가능한 관광·마이스 산업 생태계 구축과 육성 등 추진
- 울산만의 관광·마이스 콘텐츠 개발, 관광·마이스 도시 도약 기반구축

□ 울산시는 지역 관광·마이스 산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재)울산관광재단의 최종 설립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 (재)울산관광재단은 지난 5월 행안부 설립승인을 받은 이후 재단설립 및 운영조례의 제정·공포, 재단 임원 선임과 창립총회를 거쳐 12월 9일 최종 설립을 위한 등기를 마쳤다. 이어 남구 신정동 공업탑하트랜드 3층에 재단 사무실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업무에 돌입한다.

□ 조직은 대표이사를 포함해 7팀 32명으로 구성된다.

□ 주요 업무는 울산 관광마케팅 및 콘텐츠 발굴의 전문화, 전시컨벤션센터 운영과 국제회의 유치, 기획전시 업무, 관광·마이스산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을 추진하여 관광·마이스 도시 위상 정립, 관광·마이스산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관광·마이스산업 생태계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특히, 기존 울산도시공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울산시티투어 및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운영 등의 관광·마이스 업무와 전담 인력을 고용승계·인수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 이와함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부처의 국비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울산만의 관광·마이스 도시 울산 구현에 나선다.

□ 이상찬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울산관광재단 출범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는 관광·마이스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관광·마이스산업을 제조업과 더불어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이끌어 시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마이스(MICE) :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 및 이벤트(Exhibition&Event)의 영문 앞 글자를 딴 용어

(울산광역시, 관광진흥과(052-229-3851) | 게시일 : 2020.12.22.)

[경기도] 도, 관광지 시설개선·인식개선교육 등 관광약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 시·군 관광지 보도 단차 제거 등의 환경개선 지원(3곳 완료, 3곳 진행 중)
- 임진각 평화누리 산책로 교체·보수 공사 등 공간환경 개선 추진
- 관광업계 인식개선 사업, 무장애 관광지 정보 제공,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 등

□ 경기도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관광약자들이 문턱 없이 도내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 도는 올해 시·군 관광지 공모를 통해 ▲용인 한국민속촌 ▲부천시립박물관 ▲안성맞춤박물관 ▲안성 3·1운동기념관 ▲포천 산정호수 ▲양평 세미원 등 6곳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이용자 중심의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관광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편의시설 확충이나 보행로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이 중 한국민속촌에는 수유시설을 설치해 영유아를 동반한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했으며, 장애인 주차구역에 야간전용 안내판을 설치했다. 부천시립박물관에는 가족쉼터 조성 및 동선 확보 사업을 추진했고, 안성맞춤박물관에는 경사로 개선공사를 진행했다. 이외 3곳도 관광지 맞춤형 사업을 진행 중이다.

□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 23억 원으로 임진각 공간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임진각 평화누리 산책로에 턱 없애기, 포장면 평탄화, 경사면 완화 등의 산책로 교체·보수 공사를 완료했다. 내년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아기쉼터’를 조성하고, 장애인 화장실 안전손잡이를 따뜻한 느낌을 주는 나무 등의 재질로 교체할 계획이다.

□ 물리적 환경 개선 외에도 도는 관광약자를 응대하는 관광업계 종사자들에게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 추진해 470명의 종사자들이 교육을 수료할 수 있었다. 또한, 무장애 관광지에 대한 실효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40개소 관광지의 관광약자별 맞춤 정보를 수록한 안내지도를 각 3,000부씩 제작·배포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제안방식의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보장구 용품 및 수어 홍보영상,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했다.

□ 아울러 도내 관광지를 방문하는 장애인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경기여행누림)으로 휠체어 탑재가 가능한 대형버스(2대)를 총 97회 운영해 장애인과 동반자 1,085명에게 도내 관광의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웠으나, 장애인거주시설과 주간보호시설 장애인들을 위해 정차 없이 왕복 2시간 이내의 ‘찾아가

는 드라이빙’을 35회 추진해 도내 장애인과 동반자 380명에게 일상의 여유를 선사했다.

-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관광약자를 포함한 모든 도민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는 도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내년에도 최소 3곳 이상의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등 차별 없이 누구나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광과(031-8008-3331) | 게시일 : 2020.12.27.)

[전라남도] 전남도, 글로벌관광 중심지 견인할 ‘민관협의회’ 발족

- 21일 첫 회의… 관광공사·공항공사·KT·제주항공 등과 업무협약도

- 전라남도가 코리아 토탈관광 패키지(KTTP)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글로벌관광의 중심지로 비상하는데 견인자 역할을 할 민관 협의회를 발족하고, 실행 주체 간 업무협약도 맺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 전라남도는 21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이견철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 이재철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장, 이상태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장 등 기관단체장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류형 관광을 위한 KTTP 민관 협의회 발족식을 열었다.
- 이는 전라남도가 무안공항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준비한 ‘전남 KTTP’ 사업이 문체부의 ‘지역혁신 통합지원’ 공모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 민관 협의회는 문체부 등 9개 부처가 연계해 지원하는 ‘지역혁신 통합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광 현업 종사자와 유관기관단체장, 대학 교수 등 25명으로 구성됐다. 기관 간 소통 강화와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 또 관련 기관단체 실무진 32명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 사업 세부계획을 발전시키고 구현하기 위해 수시로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전라남도는 실무협의회를 동시 개최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일정을 미뤘다.
- 발족식에선 전남도와 관광공사, 공항공사, KT, 제주항공이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김이배 제주항공 사장, 서창석 KT 전남전북광역본부장이 참석했고, 김명운 공항공사 부사장, 신상용 관광공사 관광산업본부장은 비대면으로 함께 했다.
- 협약은 국토 서남권 국제관문인 무안공항 활성화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지속가능한 전남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은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관광플랫폼 구축과 전남관광 및 무안공항 활성화 국내외 홍보, 지역완결형관광 실현 콘텐츠 개발, 관광객 체감형 선도모델 개발 등에 협력기로 했다.
- 토론회에선 심원섭 목포대 교수가 “KTTP는 각 부처에 흩어졌던 관광사업을 종합해 추진하는 최초의 시도로 전남이 첫 단추를 잘 꿰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박창규 도립대 교수는 “사업의 성패는 내외국인 관광객이 한국다움을 체감하고 만족하는 체험형 한국관광 선도모델 개발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 한승주 전남상인연합회장도 “김, 인삼, 건어물 등 외국인의 선호물품을 판매하는 전통

시장을 중심으로 다국어 안내판 등 수용태세를 잘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으며, 우송하新安비치호텔 사장은 “코로나 시대에 맞게新安 퍼플섬, 완도 청산도, 목포 근대역사 박물관 등 숨은 관광지 중심의 체류형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코리아 토탈관광 패키지 사업으로 무안공항을 활성화하고 전남도를 글로벌관광지로 재도약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사업의 성공을 위해 업무협약 기관을 비롯한 민관 협의체 참여 기관들이 전남관광의 비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전라남도, 관광과(061-286-5220) | 게시일 : 2020.12.21.)

[경상남도] 경남 창원,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공모사업’의 <문화재 등록조사 후보대상지>로 선정

- 경남 창원 진해구 중원광장 일대, 3차례 평가 거쳐 문화재등록조사 후보대상지로
- 우리나라 최초 근대계획 도시 평면 잘 보존, 일제강점기 이후 도시경관·건축유산 집중적 보존돼 활용가치 높다고 평가
- 5년간 최대 사업비 500억, 문화재 보존·활용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공모사업’에 <경남 창원시 진해구 중원광장 일대>가 3차례에 평가를 거쳐 문화재 등록조사 후보대상지로 선정됐다.
-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은 문화재청이 공모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근현대 역사문화자원과 상징적 공간을 보존·활용하여 구도심 재생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 <창원(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은 진해 중원로터리를 중심으로 대천동~창선동 일원으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계획 도시의 평면이 잘 보존되어 있고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 구도심의 도시 경관과 건축 유산이 집중적으로 보존되어 있어 활용 가치가 높다고 평가돼 이번 사업지로 선정됐다. 이는 2019년 통영시에 이어 경남도에서 두 번째로 선정된 것이다.
- 향후 종합평가 의견을 반영해 문화재 위원회 검토·심의 등 일련의 문화재 등록절차와 현지조사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재로 고시됨으로써 2021년 12월에 최종 선정된다.
- 경남도와 창원시는 이 사업을 통해 2022년부터 5년간 최대 사업비 500억을 지원받아 ▶학술조사연구, ▶역사문화공간 내 토지 매입, ▶등록문화재의 보수·복원, ▶역사경관 회복 등의 보존기반 조성사업과 ▶교육·전시·체험공간 조성, 운영 콘텐츠 개발, 편의시설 확충 사업 등의 활용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류명현 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지난해 통영시에 이어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도의원(심상동)의 지원으로 창원시가 선정돼, 2년 연속 공모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게 됐다”며, “근현대문화유산을 통해 구도심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가야문화유산과(055-211-4576) | 게시일 : 2020.12.21.)